

현장과 시각

약발없는 폴 사인제 폐지



이종태

경제부 부장

지난 1일부터 한 주유소에서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 팔도록 한 상표표시제 고시, 이른바 '폴 사인제(Pole Sign System)'가 폐지됐다.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받아온 기름값을 내리기 위해 정부가 내린 특단의 조치다. 이에 따라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표시한 주유소라도 다른 정유사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당초 폴 사인제는 석유제품 판매과정에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브랜드 선택권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빌려 지난 1992년 도입됐다.

석유류 제품의 브랜드를 믿고 사는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을 보호하면서 양질의 석유제품을 제공한다는 명분을 밑에 깔았으나, 결과적으로 기름값만 올렸다는 비난만 뒤집어쓰고 도중인 폴 사인제가 폐지됐다고 해서 기름값이 떨어질까. 일부에서는 브랜드 혼합판매가 허용되면 정유소와 정유사의 전속계약이 줄어들어, 정유사의 공급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기름값이 8당 40~50원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그러나 국제유가의 급락으로 8당 1천500원대 이하로 떨어지자 할 일less 정유소의 휘발유값이 9일 현재 1천200원대를 웃돌아 지고 있다. '약발'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가.

더욱이 광주·전남지역 200여개의 주유소를 둘러봐도 여러 정유사 제품을 함께 파는 주유소를 찾아보기도 힘들다. 대부분의 주유소가 정유사 직영이거나 개인 주유소들도 1.3~5년 단위로 독점계약을 맺고 있어 계약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주유소협회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폴 사인제를 폐지했다고 해서 기름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뭘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노예계약으로 불리는 정유사와 주유소간 공급계약으로 인해 기름값 등락은 폴 사인제 폐지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각종 생활필수품을 끌어올려 서민가계를 위압하고 있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서 폴 사인제 폐지와 같은 '점심행진'만으로는 부족하다.

일본의 3배, 미국의 5배에 달하는 기름값을 내리려면 먼저 소비자가격의 60%에 달하는 유통세를 인하해야 한다. 또 정부 차원에서 정유사의 가격담합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정유사 및 주유소간 자율경쟁을 유도하는 작업도 시급하다.

일부 정유사가 대리점을 통해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 대리점에 중간마진을 챙기려는 폐해도 없어야 한다. 정유소와 주유소간 직거래가 이뤄지는 유통구조가 확립돼야 소비자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내려갈 것이다.

/ jilee@kwangju.co.kr



북한 조선중앙TV는 오후 9시부터 김일성 광장에서 치러진 노동적위대 열병식을 녹화중계했으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9.9절 행사 불참... 외신 "위중한 상태"

김정일 건강 이상설 증폭... 佛·獨 의료진 방북설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9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정권 수립 60주년 행사에 불참함으로써 건강이상설이 증폭되고 있다.

북한은 정권 수립 60주년을 앞두고 병력과 장비를 동원한 대규모의 군사퍼레이드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과거와는 달리 오후에 정경군이 아닌 노동적위대와 평양시민들만의 퍼레이드만 갖는 방식으로 축소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9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정권 수립 60주년 행사에 불참함으로써 건강이상설이 증폭되고 있다.

북한은 정권 수립 60주년을 앞두고 병력과 장비를 동원한 대규모의 군사퍼레이드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과거와는 달리 오후에 정경군이 아닌 노동적위대와 평양시민들만의 퍼레이드만 갖는 방식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김정일 위원장의 신변에 건강 등이 이상이 생기면서 행사를 대폭 축소하고 김 위원장이 불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TV는 8시 정경뉴스 시간에 정권 수립 60주년을 축하하는 각종 정상의 축전 등을 소개하면서도 퍼레이드와 김정일 위원장의 동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도통신은 이날 오후 평양발 기사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9일 열린 정권수립 60주년 기념 퍼레이드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1998년, 2003년과는 달리 "군중의 선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면서 "다른 북한 고위관료들의 참가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김정일 위원장의 신변에 건강 등이 이상이 생기면서 행사를 대폭 축소하고 김 위원장이 불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TV는 8시 정경뉴스 시간에 정권 수립 60주년을 축하하는 각종 정상의 축전 등을 소개하면서도 퍼레이드와 김정일

위원장의 동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도통신은 이날 오후 평양발 기사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9일 열린 정권수립 60주년 기념 퍼레이드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1998년, 2003년과는 달리 "군중의 선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면서 "다른 북한 고위관료들의 참가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김정일 위원장의 신변에 건강 등이 이상이 생기면서 행사를 대폭 축소하고 김 위원장이 불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TV는 8시 정경뉴스 시간에 정권 수립 60주년을 축하하는 각종 정상의 축전 등을 소개하면서도 퍼레이드와 김정일

日 차기 총리 유력 아소 간사장 "일왕 야스쿠니 참배해야"

차기 일본 총리로 유력시되는 아소 다로 자민당 간사장이 A급 전범을 합사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도쿄 야스쿠니 신사를 일왕도 참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교도통신이 9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아소 간사장은 이나다 도모미 의원이 야스쿠니 참배를 요청하는 정책제언을 한데 대해 "외할아버지인 요시타 시게루 전 총리와 주권회복의 날인 지난 4월28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며 "일왕 폐하도 참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사노 가오루 경제재정상도 일왕의 야

스쿠니 신사 참배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나다 의원 등 자민당 소장파 의원 19명은 지난 8일 아소 간사장 등 당 총재선거 출마 예정자들에게 야스쿠니 신사 참배, 집단적 자위권 용인, 역사교육 재고, 자주 방위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정책제언을 했다. 이나다 의원은 지난 3월 야스쿠니 신사를 소제로 한 영화 '야스쿠니'에 대해 "정치적 중립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사전 시사회를 요구하는 바람에 일부 극장에서 영화 상영이 중지되는 등 파문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DJ 노르웨이 방문 출국 노벨평화상 정상회의 참석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9일 '노벨평화상 정상회의' 참석차 노르웨이를 방문하기 위해 부인 이희호 여사와 함께 출국했다.

김 전 대통령은 오는 10일 스타방케르에서 열리는 '노벨평화상 정상회의' 개막식에 참석하고 11일에는 '대화의 힘-공동의 이익을 목표로 하는 상호주의 대화'를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한다.

김 전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반도 햇볕 정책과 남한의 대외 정책에 대해 등 이른바 '상호주의 대화'가 성공한 역사적 사례를 들려 공동 이익을 전제해 평화적 대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갈등 해결을 주장할 예정이다.

2008 미 대선

매케인 대약진

'페일린 효과'... 오바마와 지지율 격차 벌려

'컴백 키드(comeback kid)' 존 매케인의 약진이 예상외로 뜨겁다.

공화당의 매케인 대선후보는 지난주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서 개최됐던 전당대회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후보를 따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일각에서는 오바마가 지난 1988년 여름 공화당의 아빙저 조지 부시 후보를 상대로 최대 17%포인트까지 격차를 벌리고 오다가 중반 이후 추락해 버린 민주당 마이클 듀카키스 후보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매케인은 등록유권자를 상대로 실시된 USA투데이-갤럽의 공동 여론조사에서 50%의 지지율을 기록, 46%에 그친 오바마를 앞섰다. 매케인의 지지율이 50%까지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등록유권자뿐 아니라 11월 대선일에 투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권자까지 합하면 매케인은 54%, 오바마는 44%로 10%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특히 매케인은 민주당의 덴버 전당대회 후 7%포인트 차까지 오바마에게 뒤졌으나, 단숨에 11%포인트를 만회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구가하고 있어 단순히 전당대회 효과가 아닌 추세의 변화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매케인의 극적인 지지율 반등은 전당대회 기간 선을 보인 새라 페일린 알래스카 주지사의 개혁적 이미지와 낙태반대 소신, 가족까지 중시 하향관 등이 시너지를 효과를 발휘,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갤럽이 5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단독 여론조사에서도 매케인은 49%의 지지로, 44%까지 지지율이 내려왔던 오바마를 제압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라스무센의 여론조사에서도 매케인은 47%의 지지를 얻어 오바마를 1%포인트 차로 제쳤다.

이번 조사에서 매케인은 유권자들의 '충성도'면에서도 오바마를 압도했다. 매케인 지지자 가운데 41%는 대선일에도 매케인을 지지하겠다고 답한 반면, 오바마 지지자들은 38%만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오바마 캠프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전국적인 여론대회 후 7%포인트 차까지 오바마에게 뒤졌으나, 단숨에 11%포인트를 만회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구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北 핵시설 복구 준비 단계"

미 국무부 "IAEA 봉인 제거 여부는 확인 안돼"

미 국무부는 8일 북한이 영변핵시설을 불능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무부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설치한 핵시설 장비에 대한 봉인을 제거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산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장비를 일부 이동시킨 것 외에 IAEA 봉인 제거 등 추가 조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봉인이 제거되거나 파괴됐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며 "영변 핵시설 가동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그들이 중립에 취했다는 것 같은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현재의 평가"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불능화 과정을 되돌리겠다고 말로 위협하는 단계, 핵시설 복구 준비단계, 실질적인 복구단계가 있을 수 있다"며 "그들은 아마 불능화 이전으로 가기 위해 복구를 준비하는 두 번째 단계 어디인가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핵시설을 복구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그리고 복구 비용이 얼마가 될지 그리고 그들이 비용을 부담하려고 할지 여부에 많은 의문이 있다고 매코맥 대변인은 지적했다.

매코맥 대변인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 복구시도를 미국 측에 통보했는지 여부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해 정기 접촉이 있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참고에서 장비를 꺼내지 않기를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암시를 받았고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경·공매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법무사 권숙원
공인중개사 김갑순

(주)옥션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09-23번지 (법원경매 입찰장 앞)

친철상담
☎ 062)222-8446
H.010-3666-8446

지역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비고
북구	북구	465/77	8,980,000	8,980,000	4층/100㎡/100㎡/100㎡
	북구	413/690	9,940,000	9,940,000	5층/100㎡/100㎡/100㎡
북구	북구	101/285	2,918,000	2,918,000	1층/20㎡/100㎡/100㎡
	북구	316/479	2,918,000	2,918,000	1층/100㎡/100㎡/100㎡
북구	북구	91/165	2,922,000	1,985,000	1층/100㎡/100㎡
	북구	187/647	14,970,000	8,277,000	1층/100㎡/100㎡
북구	북구	185/2732	18,980,000	18,980,000	1층/100㎡/100㎡/100㎡
	북구	195/635	2,922,000	1,985,000	1층/100㎡/100㎡/100㎡
북구	북구	128/981	8,980,000	2,922,000	1층/100㎡/100㎡
	북구	128/981	8,980,000	2,922,000	1층/100㎡/100㎡

▶아파트

지역	소재지	면적(㎡)	감평가	최저가	비고
북구	북구	522/152	4,980,000	3,270,000	1층/100㎡/100㎡
	북구	483/112	4,000,000	2,920,000	1층/100㎡/100㎡
북구	북구	680/231	8,740,000	6,200,000	1층/100㎡/100㎡
	북구	463/162	6,530,000	4,570,000	1층/100㎡/100㎡
북구	북구	582/274	8,980,000	3,980,000	1층/100㎡/100㎡
	북구	162/73	8,980,000	5,800,000	1층/100㎡/100㎡
북구	북구	154/156	1,980,000	782,000	1층/100㎡/100㎡
	북구	142/106	1,922,000	880,000	1층/100㎡/100㎡
북구	북구	180/53	970,000	3,900,000	1층/100㎡/100㎡
	북구	160/141	8,390,000	5,980,000	1층/100㎡/100㎡
북구	북구	188/173	1,918,000	8,300,000	1층/100㎡/100㎡
	북구	384/183	1,984,000	8,300,000	1층/100㎡/100㎡
북구	북구	143/107	1,934,000	940,000	1층/100㎡/100㎡
	북구	143/107	1,934,000	940,000	1층/100㎡/100㎡

▶단지

지역	소재지	종도	면적(㎡)	감평가	최저가	비고
북구	북구	이동원	347	8,300,000	5,800,000	1층/100㎡/100㎡
	북구	이동원	1,088	2,950,000	1,980,000	1층/100㎡/100㎡
북구	북구	이동원	514	2,950,000	1,980,000	1층/100㎡/100㎡
	북구	이동원	1,788	2,880,000	2,000,000	1층/100㎡/100㎡
북구	북구	이동원	1,732	1,730,000	1,290,000	1층/100㎡/100㎡
	북구	이동원	1,732	1,730,000	1,290,000	1층/100㎡/100㎡
북구	북구	이동원	1,732	1,730,000	1,290,000	1층/100㎡/100㎡
	북구	이동원	1,732	1,730,000	1,290,000	1층/100㎡/100㎡

▶다세대(빌라)

지역	소재지	면적(㎡)	감평가	최저가	비고
북구	북구	355/248	3,910,000	2,195,000	1층/100㎡/100㎡
	북구	663/71	4,910,000	2,980,000	1층/100㎡/100㎡
북구	북구	212/132	1,110,000	2,980,000	1층/100㎡/100㎡
	북구	1,985/115	16,970,000	6,980,000	1층/100㎡/100㎡
북구	북구	982/71	9,900,000	3,400,000	1층/100㎡/100㎡
	북구	315/154	7,980,000	3,980,000	1층/100㎡/100㎡
북구	북구	1,954/94	6,980,000	3,980,000	1층/100㎡/100㎡
	북구	1,954/94	6,980,000	3,980,000	1층/100㎡/100㎡

▶기타

지역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비고
북구	북구	114/165	440,000	1,580,000	1층/100㎡/100㎡
	북구	1,451/735	940,000	3,000,000	1층/100㎡/100㎡
북구	북구	1,679/394	5,980,000	2,830,000	1층/100㎡/100㎡
	북구	903/1,739	2,970,000	970,000	1층/100㎡/100㎡

▶농가관련시설

지역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비고
북구	북구	114/165	440,000	1,580,000	1층/100㎡/100㎡
	북구	1,451/735	940,000	3,000,000	1층/100㎡/100㎡
북구	북구	1,679/394	5,980,000	2,830,000	1층/100㎡/100㎡
	북구	903/1,739	2,970,000	970,000	1층/100㎡/100㎡

▶오피스텔

지역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비고
북구	북구	158.5	2,970,000	1,900,000	1층/100㎡/100㎡
	북구	39.8	4,400,000	1,900,000	1층/100㎡/100㎡
북구	북구	33	2,900,000	1,200,000	1층/100㎡/100㎡
	북구	39.8	4,400,000	1,900,000	1층/100㎡/100㎡
북구	북구	48.5	5,000,000	3,700,000	1층/100㎡/100㎡
	북구	69.3	8,900,000	5,300,000	1층/100㎡/100㎡

▶지리(리조트)

지역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비고
북구	북구	281/1,579	11,940,000	5,590,000	1층/100㎡/100㎡
	북구	281/1,579	11,940,000	5,590,000	1층/100㎡/100㎡
북구	북구	281/1,579	11,940,000	5,590,000	1층/100㎡/100㎡
	북구	281/1,579	11,940,000	5,590,000	1층/100㎡/100㎡

▶아수시물신용

지역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비고
북구	북구	281/1,579	11,940,000	5,590,000	1층/100㎡/100㎡
	북구	281/1,579	11,940,000	5,590,000	1층/100㎡/100㎡
북구	북구	281/1,579	11,940,000	5,590,000	1층/100㎡/100㎡
	북구	281/1,579	11,940,000	5,590,000	1층/100㎡/100㎡

▶채권

지역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비고
북구	북구	281/1,579	11,940,000	5,590,000	1층/100㎡/100㎡
	북구	281/1,579	11,940,000	5,590,000	1층/100㎡/100㎡
북구	북구	281/1,579	11,940,000	5,590,000	1층/100㎡/100㎡
	북구	281/1,579	11,940,000	5,590,000	1층/100㎡/100㎡

▶채권

지역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비고
북구	북구	281/1,579	11,940,000	5,590,000	1층/100㎡/100㎡
	북구	281/1,579	11,940,000	5,590,000	1층/100㎡/100㎡
북구	북구	281/1,579	11,940,000	5,590,000	1층/100㎡/100㎡
	북구	281/1,579	11,940,000	5,590,000	1층/100㎡/100㎡

▶채권

지역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비고
북구	북구	281/1,579	11,940,000	5,590,000	1층/100㎡/100㎡
	북구	281/1,579	11,940,000	5,590,000	1층/100㎡/100㎡
북구	북구	281/1,579	11,940,000	5,590,000	1층/100㎡/100㎡
	북구	281/1,579	11,940,000	5,590,000	1층/100㎡/100㎡

▶채권

지역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비고
북구	북구	281/1,579	11,940,000	5,590,000	1층/100㎡/100㎡
	북구	281/1,579	11,940,000	5,590,000	1층/100㎡/100㎡
북구	북구	281/1,579	11,940,000	5,590,000	1층/100㎡/100㎡
	북구	281/1,579	11,940,000	5,590,000	1층/100㎡/100㎡

▶채권

지역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비고
북구	북구	281/1,579	11,940,000	5,590,000	1층/100㎡/100㎡
	북구	281/1,579	11,940,000	5,590,000	1층/100㎡/100㎡
북구	북구	281/1,579	11,940,000	5,590,000	1층/100㎡/100㎡
	북구	281/1,579	11,940,000	5,590,000	1층/100㎡/100㎡

▶채권

지역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비고
북구	북구	281/1,579	11,940,000	5,590,000	1층/100㎡/100㎡
	북구	281/1,579	11,940,000	5,590,000	1층/100㎡/100㎡
북구					